

[기자회견문]

**단협·노동위원회 명령 모두 무시했다
경남CBS 아나운서 정규직 고용, CBS 김진오 사장 결단하라!**

부당해고 소송 끝에 경남CBS로 돌아갔던 최태경 아나운서의 정상복직 투쟁이 6개월로 접어들었다. 그 기간 사측은 최태경 아나운서 자리를 공용좌석으로 만들고 방송원고 결제 라인을 없앴으며, 심지어 아나운서 직함도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아나운서로서의 지위’를 지워갔다. 꿈수 복직도 모자라 지노위와 중노위에서도 인정한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기어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자 반인권적 폭력이다.

최근 프리랜서 부당해고 사례가 방송가의 악습처럼 늘고 있다. 경영 위기를 빌미로 프리랜서들을 쉽게 쓰고 쉽게 해고하는 방송노동현장의 고질적인 관행과 구조적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 개악과 맞물리며 앞으로 그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 적폐 행위가 바로 CBS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CBS가 어떤 곳인가.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의 폭압에 맞서 준엄한 투쟁을 앞장서 펼친 곳 아니던가.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CBS 보도는 군부를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냈다. 단협에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항목을 두며 대한민국 최초로 방송사 내 비정규직 채용 최소화와 노동인권 개선에 앞장섰던 곳도 바로 CBS였다.

그렇게 한국 현대사에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 낸 CBS가 지금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질타에 대해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불의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냈던 CBS가, 프리랜서 해고도 모자라 노동에 대한 법리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 불복에 앞장서고 있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투쟁에 앞장서 온 CBS 정신의 위배이자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와 다름없다.

CBS의 오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대한 ‘빈집 경호’ 보도 삭제 요청, 튀르키예 파견 취재 불허, 낮은 출산율 보도를 비롯한 다수 기사에 대한 사장의 보도개입은 ‘정도 언론’, ‘약자에 대한 따뜻함’을 강조해 온 CBS의 미래를 걱정하게 한다.

CBS 김진오 사장에게 묻는다. 단협 제32조, '회사가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안 되며, 계약직·촉탁직·파견직 노동자 채용 시에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아나운서 등 일반직군에 해당하는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항목을 과연 읽어는 보셨는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최태경 아나운서 채용과 해고가 단협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가.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당신 자신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가.

김진오 사장은 답하라. 법적인 문제를 떠나 CBS가 지켜온 가치에 따라 소송을 중단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해 보자.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힘, 비정규직 해법 찾기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바란다. 외면과 회피가 답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전국 각지 수많은 프리랜서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언론노조 미디어공제회를 통해 해고되지 않을 권리,堂堂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할 준비도 되어 있다.

김진오 사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협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포함한 법 위반 사례를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국 각지의 CBS에 대한 근로감독도 신청할 것이다. 경남CBS 최태경 아나운서 외에 전국 제2, 제3의 최태경들의 노동인권 회복을 위해 결연한 자세로 맞설 것임을 알린다.

소송으로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면담 자리에 나서라. 더 늦기 전에 행정소송을 지시했던 김진오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김진오 사장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상기하라.

2023년 3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CBS 아나운서 정상직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돌꽃노동법률사무소,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남청년유니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경남여성단체연합)